

[보도자료] 쿠팡, 물류로봇 경진대회 개최 “AI 물류혁신 이끌 인재 키운다”

2025. 6. 1.



정종철 CFS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장상'을 받은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물류과 '스마트분류'팀(왼쪽부터 최승화, 박수빈, 김가을)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CFS·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5 WCRC 공동주최
- 전국 고교·대학 100여 팀 참가 산업 현장에 적용가능한 물류로봇 기술 선보여
- 입상자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입사 시 가산점 부여 “쿠팡 물류혁신 이끌 AI 기술인재로 육성”

2025. 06. 01. 서울 - 미래 물류혁신을 이끌어 갈 AI 기술 인재들이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에서 로봇으로 한판 승부를 펼쳤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 2025 WCRC(World Creative Robot Contest) 물류로봇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대구광역시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열린 이번 물류로봇 경진대회에는 전국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등 100여 팀이 참여했다.

대회는 실제 물류산업 현장을 반영한 두 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참가팀은 첫째 날 '분류 물류로봇' 부문에서 컴퓨터비전 기반 색상 및 순서 인식을 통한 자동 분류 미션을, 둘째 날 '이송 물류로봇' 부문에서는 RFID 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이송 미션을 수행했다.



2025 WCRC 물류로봇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각 부문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장상 등 20여 개 상훈이 수여됐다. 이외에도 수상팀에게는 세계 최대 로봇대회인 'Robogames'(2025년 8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개최)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이번 2025 WCRC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코리아텍배'팀 4학년 정현욱 군은 "경기장의 빛과 그림자를 고려해 로봇의 센서 값을 미세하게 조정한 덕분에 완벽하게 미션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기계와 전기, 전자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AI 로봇까지 모두 다룰 수 있는 만능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장상을 받은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물류과 '스마트분류'팀 박수빈 양은 "2라운드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 무엇보다 쿠팡에서 주는 상을 받아 기쁘다"며 "AI를 더 공부해서 물류혁신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대구광역시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2025 WCRC 물류로봇 경진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CFS가 주최로 참여한 첫 물류로봇 경진대회로, 입상자들에게 자사 입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특전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얻었다. CFS는 물류로봇 분야의 AI 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실제 쿠팡에서 AI 물류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종철 CFS 대표이사는 폐회식에서 "이 자리에 있는 학생 여러분이 미래 물류산업의 핵심 인재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이번 대회 입상자들이 쿠팡의 인공지능과 물류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FS는 전국 풀필먼트센터에 랜덤 스토우, AGV(Automated Guided Vehicle), 소팅 로봇, 로보틱 암(Robotic Arm) 등 첨

단 자동화 기술을 지속 도입하여 직원들의 업무강도를 낮추고, 물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시기술을 통한 물류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